

‘남원의 미래’ 시민과 함께 그린다

2040 중장기계획 주민 공청회 지리산권 중핵도시 만들기 목표 합파우 아트밸리 등 의견 수렴

남원시가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남원시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2040 남원시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2040년 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2040 남원시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에 각 계각층의 시민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전북연구원 장성화 지역개발연구부장이 나와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으로 도출한 ‘시민모두가 행복한 지리산권 중핵도시 남원 만들기’를 목표로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종합구상도와 도시공간 구상안을 소개했다.

이어 ▲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람이 모이는 활력있는 도시 조성 ▲미래 지향형 지역사람 만들기 ▲출산·육아·교육으로 미래의 희망 창조 등 4개 추진전략 70개 핵심사업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합파우 아트밸리, 남원 구도심 권역, 서남대 산학연계 혁신단지, 지리산 Eco 뉴타운,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섬진강 내수



‘2040 남원시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시민공청회’가 지난 6일 남원시청에서 열렸다. <남원시 제공>

면산업 클러스터 등 남원시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2040 남원시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이며 이달 중 최종 마무리한 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

아도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일자리와 경제·복지가 누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지리산권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2040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했다”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3개 지구 선정

대강·산내·금지면 사업비 3억원 확보...통합돌봄 모델 구축 등

남원시가 전북도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3개 지구가 선정돼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북도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해 인구 2000여명 미만의 읍면을 과소화 지구로 선정, 해당 읍면 사회 복지서비스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지속가능한 서비스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남원시는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전북 권내 총 10개소 중 3개소(대강면, 산내면, 금지면)가 선정돼 최다 사업지원을 이끌어 냈다.

시는 앞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주요 플랫폼 운영(생생마을 관리소) ▲사회복지분야 민관거버넌스를 지향하는 논의구조 운영 ▲지역민 필요 서비스 발굴 ▲서비스제공 주체그룹 양성 및 활동지원 ▲지역 맞춤형 보편적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라운

드 테이블 등을 추진해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해 도심권 대비 상대적으로 돌봄의 손길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먼 단위 거점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는 등 보다 민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동학농민혁명 연구’ 학술지 창간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논문·잡오일기 자료 등 수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가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를 창간했다.

연구소는 체계된 동학농민혁명 연구를 활성화하고 신진연구자들의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져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 학술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념재단은 올해 4월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영우 총재단 명예교수를 소장으로 동학농민혁명연구소를 출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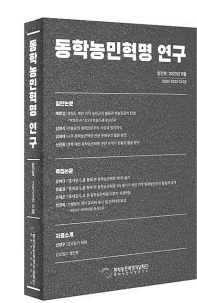
연구소는 그간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발간,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등재 기념 학술대회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활발한 학술연구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창간호에는 창간사, 동학농민혁명 관련 일 반논문 4편, ‘홍재일기로 본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의 특집 논문 4편, 경상도 김천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기록한 신자료 ‘잡오일기’에 대한 자료 소개, 연구소 소식 등이 실렸다.

학술지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학, 민속학, 지리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논문이 수록됐으며 매년 2회 발간할 예정이다.

신영우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은 창간사에서 “전문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간행을 통해 자료 발굴·유족 확인·기념 사업을 함께 해온 연구자들의 학문 성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진학자의 정진한 연구 성과를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소금사탕 담소’ 美·캐나다 수출길

해리·전북농협 530박스 선적식...내년엔 소금 초콜릿·쿠키 선보여

고창 해리농협과 전북농협은 지난 6일 해리농협 천일염가공사업소에서 ‘소금 사탕 담소’ 총 530박스(1박스 10개입)를 미국, 캐나다 등지로 처음 수출하는 선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하는 ‘소금 사탕 담소’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에서 생산한 천일염을 활용해 단짠맛을 내며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간편 간식이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고생하는 (주)한진-농협물류 택배 종사자에게 공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2012년 문을 연 해리농협 천일염가공사업소는 고창 염전 소금을 HACCP시설에서 철

저한 계약관리를 통해 선별·검사·가공·포장·출고 등 생산에서 수확까지 책임지고 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과 천일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소금 사탕 담소와 함께 소금 초콜릿, 소금 쿠키 등의 제품도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김갑선 해리농협 조합장은 “고창 천일염을 활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꾸준히 출시해 지역 홍보와 농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성황산에 2.7km 맨발 황톳길 조성

윤준병 국회의원, 4억원 확보



정읍시 수성동 성황산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2.7km 구간의 ‘황톳길’이 조성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자진)은 정읍시 수성동 산62번지 일원 성황산에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을 위한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읍 성황산 맨발 황톳길 조성’ 사업은 최근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가 주목받는 가운데 정읍 시민들이 원하던 사업으로 윤 의원이 직접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2024년까지 성황산에 황톳길(연장 2.7km, 폭 2.5m~3m)을 조성할 예정이며, 황톳길을 포함해 세죽시설, 삼터, 먼지떨이, 배수로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윤준병 의원은 “정읍 시민들이 성황산 황톳길로 자연을 접하며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읍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김치가공산업 전략 육성



6일 고창 신재호관소리공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창군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포럼

배추와 무 등 김치 속재료의 국내 주요산지인 전북 고창군이 차별화된 김치가공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한다.

고창군 출연연구기관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는 지난 6일 신재호관소리공원 세미나실에서 ‘고창군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고창 맞춤형 김치소재 6차 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김치산업 플랫폼 구축과 지속가능

한 비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의 장으로 심택섭 군수와 임정호 군의장 및 군의원을 비롯해 관내 식품 관련 기업과 김치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우선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이희권 소장이 나와 ‘고창군 김치소재 생산 현황과 R&D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고창군과 연구소는 ‘맞춤형 김치소재 6차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도비 10억을 포함 총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